

MONTHLY PRODUCT UPDATE

2018.02



02

광고 세트 수준이 아닌 캠페인 수준에서 예산 설정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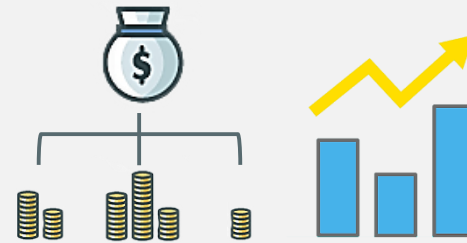
캠페인 예산 최적화는 페이스북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광고 세트를 자동으로 찾아, 최적의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캠페인 예산을 분배하는 기능입니다.

이는 광고 세트 내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광고를 찾아서 다른 광고보다 더 많이 노출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.

광고 세트에 특정한 지출 요구 사항이 있거나 새로운 타겟 및 시장에 도달하고 싶은 경우에는 따로 광고 세트 지출 한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. (캠페인 예산 최적화에 대한 유연성이 감소하므로 권장하지 않음)

Campaign Budget Optimization

캠페인의 광고 세트 전반에 캠페인 예산의 배분을 최적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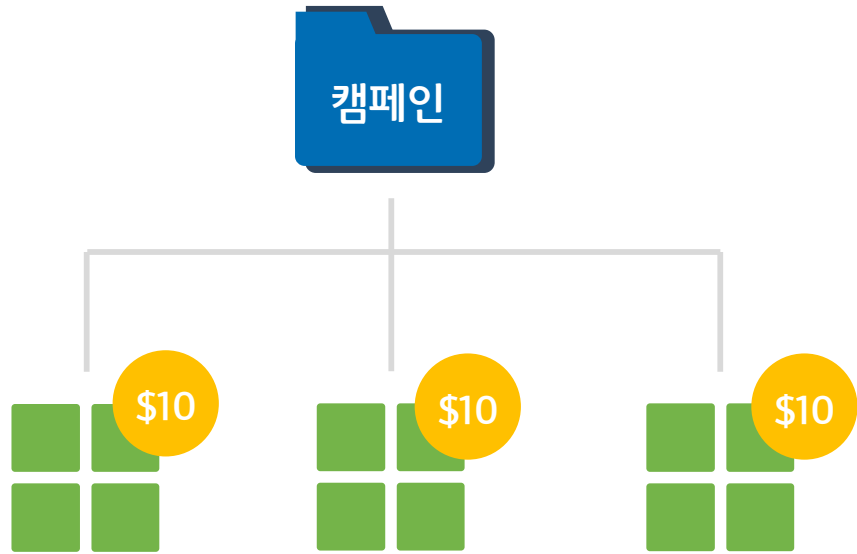


* 광고 게재 시스템 일정이 빠른 게재 혹은 일정에 따라 광고 게재일 경우에는 캠페인 예산 최적화 기능을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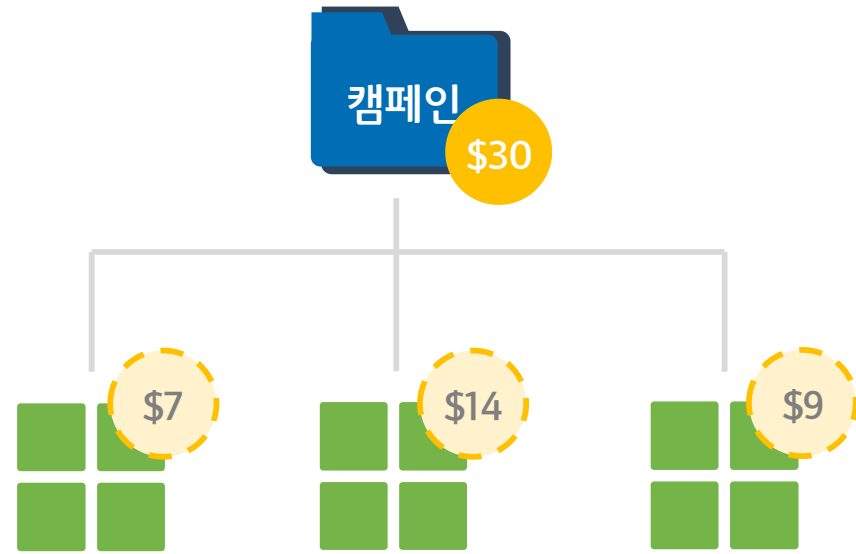


캠페인 가치 증대 및 관리 시간 절감

캠페인 예산 최적화를 사용하는 경우, 정해진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고 총 결과당 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. 또한 가장 성과가 좋은 광고 세트에 자동으로 더 많은 예산이 분배되기 때문에 각 광고 세트의 예산을 직접 변경할 필요가 없어, 최대한 많은 결과를 얻기 위해 광고 세트 전반에서 예산이 유연하게 지출되도록 하고 싶거나 캠페인 설정을 간소화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싶은 광고주라면 이 기능을 활용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.



캠페인 예산 최적화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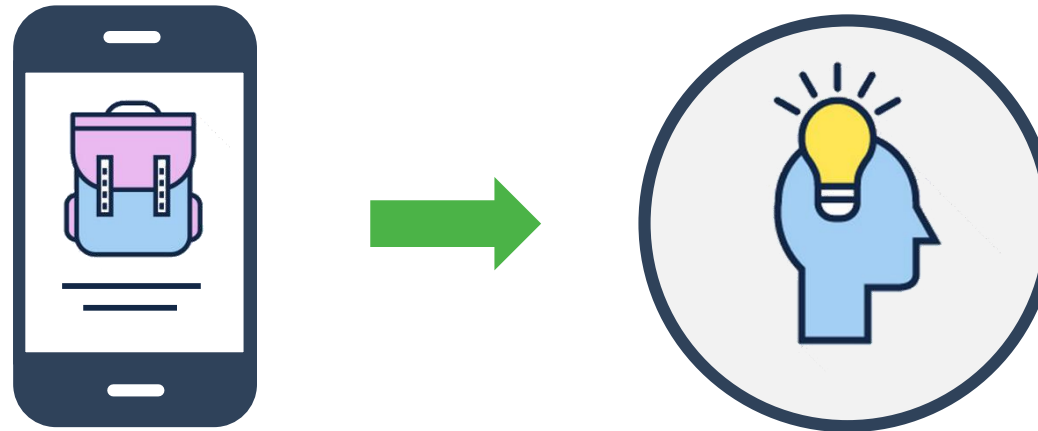


캠페인 예산 최적화를 사용하는 경우

브랜드 인지도 최적화 변경

브랜드 인지도 목표에서 선택할 수 있는 브랜드 인지도 게재 최적화의 명칭이 '광고 상기도 성과 증대 최적화'로 변경되었습니다.
광고 상기도 성과 증대 최적화는 광고를 다시 떠올리는 사람들에게 이전보다 세밀해진 알고리즘으로 더 효과적으로 도달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.
이제는 광고 세트에서 동영상과 이미지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광고 최적화를 더욱 간편하게 하기 위해 브랜드 인지도 목표의 도달 최적화 옵션이 삭제되었습니다. 도달에 최적화하려면 도달 목적의 캠페인 사용하셔야 합니다.
동영상 광고를 사용하는 경우, 새로운 브랜드 인지도 캠페인에서는 동영상 조회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. 동영상 조회수가 중요하다면 동영상 조회 캠페인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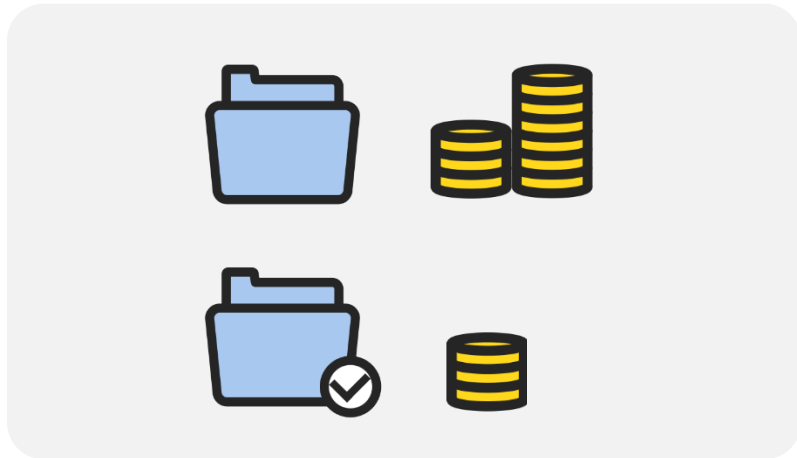




다양한 캠페인의 성공 요인 파악

다양한 캠페인의 전략을 비교 및 분석하기 위해 Test & Learn 솔루션이 출시되었습니다. 비즈니스 관리자 내에서 캠페인 별 효과 측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, 아래 두 개의 질문에 대한 테스트를 통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.

Q1. 어떤 캠페인이 가장 낮은 비용으로 전환을 발생시키는가?



Q2. 페이스북 광고를 통한 전환은 총 몇 건인가?





Test & Learn 진행 과정

Test & Learn 솔루션은 특정 광고를 본 그룹과 보지 않은 그룹에게 나타나는 성과를 비교하여 광고 성과 증대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. 아래 과정을 통해 페이스북 광고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, 그 효과를 견인하는 캠페인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페이스북은 이 솔루션을 시범 운영하기 시작하여 점차 롤아웃 중에 있으며, 2018년 초에는 모든 광고주들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페이스북을 통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면 Test & Learn 솔루션을 사용하여 어떤 캠페인이 가장 효과가 좋은 지 확인해보세요.



Question

Test를 진행할 질문을 선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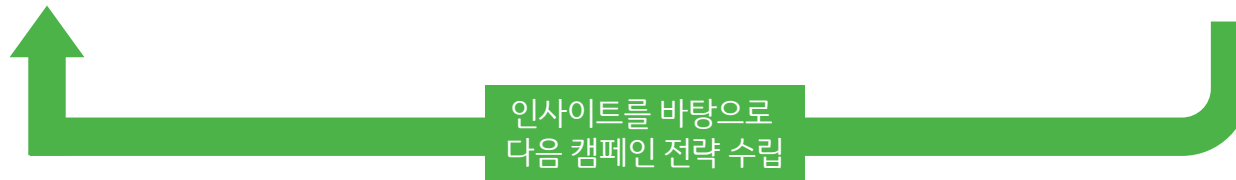
Test

세부적인 정보들을 셋팅하고 테스트를 시작



Learn

결과 리포트를 통하여 페이스북 광고의 효과를 확인





PRODUCT
UPDATE

본 보고서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DMC미디어에 있습니다.
보고서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발췌 또는 인용 시에는 반드시 당사의 사전 동의를 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DMC F-1 광고실 f1.dmc@sbs.co.kr